



2012 풀 스쿨 《보이는 청취자들》#10 기획특집 [먼지우주 워크숍] 대화의 시간\_01  
초대 강연자 임정희 선생님의 원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 마당'

\* 본 파일은 초대 강연자 임정희 선생님의 허락 하에 공유,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2012.07.03. 먼지우주/ 풀

## '죽음'에 관한 이야기마당

- "삶에 대한 사유의 근본적인 전환, 절실하다"

임 정 희( 미학·미술비평 )

[limchunghi@gmail.com](mailto:limchunghi@gmail.com)

### 1.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죽음 : 한계인식의 구성

1)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서로 '연관'과 '순환'의 체계 속에서 하나의 '복잡계 complex system'를 이루면서, '생태계 eco system'를 형성한다. 이 '생태계'에서는 인간이든, 곤충이든, 돌이나 책이든, 풀이나 나무이든 모두가 '생태계 내적 존재'일 뿐이다. 인간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이 체계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체계의 원리에 따라 생태계를 한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생태계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 체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조정,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자연을 살아있는 통합체로 이해하는 배리 코머너가 정리한 생태학의 네 가지 법칙들(1 법칙: 50 억년의 진화과정으로 이루어진 지구생태계의 모든 것은 복잡한 인과연쇄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 2 법칙: 자연계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순환한다. 자연계에는 쓰레기란 없다. 3 법칙: 지구생태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복잡미묘한 균형과 자기 보정의 체계이다. 자연계에 가해지는 인위적 변화는 이러한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4 법칙: 인간의 행위에 의해 자연계의 무엇이 제거된다면 이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연기될 수 있을지언정 피할 수는 없다.)은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연관과 순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다.

2) 생태계의 궁극적 한계 : 에너지가 열이나 일의 형태로 전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열역학의 엔트로피(Entropy='tropy'변형+'energy'동력학적 양) 법칙은 모든 물질의 운동이 자신의 소멸/죽음을 향해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1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으며 그 총량은 언제나 일정.



-2 법칙: 엔트로피 법칙. 에너지는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우주는 종국적으로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 즉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최소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인 엔트로피는 최대인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우주의 '열죽음'을 맞는다.

'우주의 열죽음'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위의 자원이 풍부하고 생태계의 항상성이 유지될 때에는 엔트로피법칙이 인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위기를 맞이하면 엔트로피법칙은 생존을 지배하는 기본원리가 될 수 있다.

▶ 생태학의 원리(연관과 순환의 체계, 전일적 관계)와 엔트로피론은 인간의 능력의 절대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하며, 겸손과 절제의 윤리에 기반하여 자연과 인간, 자연의 존재방식,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 생태적 관점에서 '죽음'은 삶과 연관되어 있고 순환관계를 형성한다.

- 우주, 별, 은하, 대륙, 산맥처럼 규모가 큰 물리 체계들은 모두 탄생과 죽음의 생물학적 비유를 허용한다. 이 체계들은 일단 형성되면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이후 서서히 스러지거나 분해되어 생을 마감한다. 이 거대한 물리 체계들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에 이르는 긴 시간대를 누리기 때문에 그보다 빨리 생겼다 사라지는 생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없는 장면을 연출한다.

인간은 불멸에 가까운 이 거대한 물리 체계들과 크기 척도의 정반대 끝에 자리잡은 다른 종류의 장수 물체들(예컨대 원자) 사이에 끼어 산다. 아주 크고 아주 작은 물체들의 상대적 불멸성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무대를 제공한다. 별들과 원자에 비해 우리는 아주 짧은 양초에 불과한, 특이하게 조직된 물질의 일시적 패턴이다. 인간의 몸은 영구적인 것들의 일시 배열이다.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 존재하는 분자들에게 생물은 상대적으로 불멸에 가까운 우주이다.

"인간의 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탄소는 먼 옛날 태양보다 먼저 살다 죽은 별들에서 나온 핵 분진이다."(도리언 세이건/타일러 볼크, 「죽음과 섹스」, 김한영 옮김, 동녘사이언스, 2012,

- 생명의 기원/생물학적 생명의 기원이 언제 어디인지는 아직 수수께끼이지만, 생물학적 죽음(체내 분자 역학이 멈출 때 생물은 죽음을 맞는다)은 생명과 함께 시작했다. 죽음이 없으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성장과 번식은 생명 덩어리의 무한증가로 이어진다. 생명의 다산성이 모든 생물의 영원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의 죽음을 딛고(재사용) 생존하고 번성한다.

▶ 생태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면서 생을 향한 존재이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1927」에서 인간 존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지평인 죽음에 의해 한계지워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 Sein zum Tode'라고 표현하였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며,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였다.

인간 존재를 죽음과 연관지어 정의한 것은 하이데거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간 사회는 수 만년, 수 천년 동안 세속적인 지평에서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너무나 통렬하게 자각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들은 무한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존재(영혼, 신 등의)를 통해 죽음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종교와 예술이 출현하였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죽음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제의로서의 예술, 장례의식 같은 것들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세속적인 지평 너머에 있는 사후세계, 또는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는 불멸의 영혼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관념의 존속방식인 미와 예술은 인간 사회들이 수천 년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실제로는 종결되지 않는 생명(삶)에 대한 느낌과 예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는 생각(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은 아직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죽음을 비껴갈 수 없는 인간 존재(생명체)의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죽음과 함께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생명에 대한 느낌과 예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생명체가 곧 생명은 아님을 가리키고 있다.

140 억년 우주의 역사는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다. 생명체가 등장한 이상 물질의 법칙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등장과 번식, 확산, 변형 등을 설명할 생명의 법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명체 역시 물질처럼 동일한 물리화학적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나, '생명은 물질 속에 비결정성을 삽입'(양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하여 물질의 운동과는 또다른 운동을 펼친다. 물질에 생명이 삽입되어 생명체가 자신의 주변환경을 물질적 공간에서 생태적 삶의 등지로 만들면서 지구는 비로서 지구생명체가 되고, 지구생태계를 구성한다.

35 억년의 생명 역사가 흐른 뒤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하였다. 생명의 노력은 인간이 등장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간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인 것이다.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추상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서 살아있는 존재, 가치있는 생명이 된다.

인간 종의 출현에 관한 앙드레 르로아-거안 Andre Leroi-Gourhan(1911-1986)의 해석은 더욱 신뢰감을 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은 동물적 신체를 환경과 연결시키는 몇가지 기능들을 통하여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 석기가 유인원의 치아와 발톱의 기능들을 외재화한 것처럼. 인간의 동물적 신체는 환경과 연결되면서 '기술적이고 상징적인 체계들'로 만들어진 '사회적 신체'를 진화시켰고, 이 사회적 신체는 동물적 신체의 유전형질과 달리 사회 안에서 문화적 전달을 통해서만 획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체는 인간의 동물적 신체 외부에 있으나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그리고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면서, 동물적인



신체의 차원을 넘어서고,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달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앙드레 르로아-거안 Andre Leroi-Gourhan, Le Geste et la Parole(몸짓과 말), Paris: Albin Michel, 1964)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동물적 신체가 개별적인 측면의 인간 존재를 '죽음을 향한 존재'로 한계지운다면, 사회적인 신체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삶을 향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즉, 인간은 동물적 신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체를 포함하면서, 그리고 개별자로서만이 아니라 보편자로서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 삶을 향한 존재(생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이고 상징적인 체계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사회적 신체는, 사회문화적이고 생태환경적이며 정치경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되고 사용되고 전달된다. 기술적인 체계들이 물질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간다면, 상징적인 체계들은 기술적인 체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므로 매개적 혹은 그물망적이다. 기술적 체계에서 도구가 만들어지고, 상징적 체계에서 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술적 체계가 동물적 신체의 기능으로부터 세계 멀리로 퍼져 나가는 외재화/확산의 진행흐름을 지니고 있는 반면, 상징적 체계는 세상 저 끝으로부터 인간 신체 내부로 흘러오는 내재화/수렴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 신체의 기능이 외재화된 로봇이나 기계장치들이 화성 탐사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곳에서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적으로 멀고 먼 우주를 표상의 힘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외재화하는 기술적 체계와 내재화하는 상징적 체계는 상보적 관계를 이루면서 환경 속에 있는 사물의 형태로서 우리 안에 남아 있고, 우리 안의 능력으로서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다. 르로아-거안은 이를 가르켜 '기술들은 우리의 신체를 우주화시키고, 상징들은 우리의 세계를 신체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구조에는 두 가지 상보적인 측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의 측면은 인간의 개별적인 부분이고, 다른 한 측면은 인간의 매개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자로서의 인간(생명체)은 출산과 함께 나타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반면 매개자로서의 인간은 인간들 자신과 인간을 둘러싼 주변환경 사이의 관계적 존재를 뜻한다. 개별 인간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변화하는 동안에도 인간 관계와 인간 사회는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연계는 지속되고 이동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고 이동하는 매개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은 또한 끊임없이 죽는다는 사실 안에서이다.

인간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은 문화로 드러난다. 인간은 단지 유전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화에 기대어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와 가치를 통해 전달하고 삶을 지속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화과정과 역사에 따라서 문화에의 의존도가 증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문화를 외적이고, 부가적이며, 본래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문화적 현상들은 단지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외부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삶이 교육이나 다른 요소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정체성 혹은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도 생각한다. 과연 그러한가?



제레미 리프킨은 문화가 시장과 정부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능케 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은 언어다.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언어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설이나 신화로 만들고, 벽화로 그리고, 자신들의 기원을 숭배하고 집단 운명을 계획하며,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 ▶ 맺음말

- 서구문화를 특징짓는 분리현상 (마음/몸, 이성/감성, 삶/죽음)을 벗어나, 물질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 모든 단계에서 생명과 죽음을 함께 엮여있음을 아는 것, 인간의 독립과 자연과의 무관성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는 것, 에너지 사용과 생태적 자국이랄 수 있는 오염의 흔적을 무시, 경시, 부인하지 않는 것등이 생태적 관점에 따라 존재의 경험에 자양분과 깊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개인적 존재는 생성과정 자체의 집단적 정신 속에 영원히 머문다. 우리에게 남겨진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성과정을 지배하는 자연의 리듬을 최대한 존중하는 길이 앞서 간 모든 생명과 우리 뒤에 올 모든 생명에 대한 일체화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생동성/ 생명 기능/ 생명현상 구별하여 생각하기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들(동·서양) 살펴보기

## 2. 비물질화가 강화되는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의 죽음, 그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함의

- ▶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의 강화 :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는 변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에도 적용되는 말로서, 우리의 삶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들과의 접촉에서 점차 멀어지는 과정을 일컫는다. 물질적 조건들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들 조건을 점차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삶을 지탱시켜 주는 노동, 그리고 자연의 작용(재생산의 영역이라 부르는 것)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것
- 물질로부터 떠나는 것은 몸/마음, 물질/정신 이원분리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정이며, 특히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비물질화 체제로의 정교화를 조장하는 과정이다.: '나은' 인간은 정신적으로 노동하며(마음 사람), 육체적인 노동(출산 및 수유를 뺀)은 기계의 영역으로(몸 사람) 분리되고, 이러한 분리 이후에 척결, 정화, 일소의 과정을 거쳐 삶의 공간이 무중량감과 비물질성에 도달
- 정치적 구조의 비물질화 : 사람 이상의 영역에 대한 작용을 일소하고, 삶에 대한 오해를 놓고, 전유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의식 / 비물질적 문화에서 비롯되는 착각, 무책임성이 자연과 공간 간의 관계와 함께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 몸, 자연, 노동, 물질의 영역을 부인하고 절하시키는 노력의 논리적 종착은 가상존재의 상태, 증권거래, 이미지메이킹,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 문화의 비물질화 과정에 따라 눈과 함께 손을 사용하고, 신체를 피로하게 하고, 물리적 세계를 직접 변경시키는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통합적 인지능력의 쇠퇴

- '하나의 진정한 공간 One True Place': 애착과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개인화된 자신의 사유재산 개념을 지지하게 되고, 지시대상으로 고착된 공간 개념.

현 세계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진정한 공간에 대한 단일한 개념은 공간에 대한 비물질화된 그릇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세계적 의식의 맥락에서 그러한 이상들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많은 가려진 공간, 숨겨진 공간들을 무시하고 있고, 동시에 세계시장에서는 우리의 인식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들 공간을 멀어지게 하면서 공식적인 단일의 이상화된 특별공간으로 방향짓도록 독려한다.(예컨대 '고향')

-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성시키는 공간, 삶을 지탱하여주는 지구의 부분으로서의 공간은?

- 모든 가려진 공간들을 '우리의' 공간으로 수용하려면?

- 우리 각자가 모든 공간(다른 공간-타인의 공간, 타 종의 공간)을 파괴하거나 쇠퇴시키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의 정의는?

- 상품들의 생산에 기반하는 단일한 시장 체제에 대적하는 복합적 공간 의식은?

- 복합적 공간에 대한 지식, 관심에 기반한 공간이해의 필요성 (Val Plumwood )

▶ 사회국가에서 '개인 안전국가'로의 변환 : 사회적 안전 보호와 그에 따른 생명보존 및 자기 신뢰를 위한 복지국가의 인구안보를 대신하여, 개인 자산의 보호와 치안상태 유지에 초점을 맞춘 안전영역이 발달한 국가상태를 가리키며, 신자유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

- '살리거나 죽게끔 내버려두는' 생명-권력, 생명관리-정치와 체계적으로 죽음을 방임하고 유도하는 죽음-정치 (푸코)

▶ 자본주의 경쟁과 패배, 환상과 환멸, 도취와 우울을 늘 짝패구조로 작동

-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승리가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 거대 인구들의 패배의식, 낭패감을 강화.사회는 해체되고, 타자들과의 교류공간이 사라지고, 삶의 고민을 토로하고, 보호받을 공적 공간이 삭제된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복지 기능을 축소시키고, 사회와 국가의 위축상황에서 도전과 부귀를 강조하는 자본의 일상 포획현상 강화.-과로사

- 살인적 경제의 조건과 대중적 우울증(경제적 불경기와 정신적 우울증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 경색성 질병이며 '타자 긍정성의 과잉', '같은 것의 과다'로 인한 질병이 창궐한 사회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계성성격장애, 소진증후군

- 이질성과 타자성이 소멸된 사회구조



- 폭력의 원천으로서의 같은 것(‘긍정성의 폭력’): 이질적인 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밖으로 밀어냄.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긍정성의 폭력.
  - 긍정성의 과잉에 대한 반발은 면역이 아니라, 소화 신경적 해소 내지 거부반응으로 나타남. 과다에 따른 소진, 피로, 질식도 신경성 폭력현상
  - 신경성 폭력은 ‘내재성의 폭력’: 타자가 불러 일으키는 공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
  -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 보다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 성과를 향한 압박으로 가득찬 성과사회에 내재하는 시스템의 폭력: 탈진 우울증, 소진증후군: 과도한 책임과 주도권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근대적 노동사회의 새로운 계율이 된 성과주의의 명령’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11-30 쪽)

▶ 호모 사케르(homo sacer) : 호모 사케르는 범죄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된 자를 말한다. 호모 사케르에 대한 살인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주권자는 기존 법질서의 효력을 해제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폭력, 법질서 밖에서 법질서에 관계하는 폭력을 체현한다. 즉 주권자가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법이 필요없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을 생산하는 것은 바로 주권자 본연의 활동이다.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 바깥에 있어서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벌거벗은 생명인 것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오직 주권자의 권력 속에 편입됨으로써, 즉 “오직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무조건적 권력에 맡겨짐으로써” 정치화된다. 벌거벗은, 죽여도 되는 생명과 주권자의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낚는 관계에 있다. “우리 현대인이 정치적 공간을 시민권, 자유의지, 사회계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직 벌거벗은 생명만이 진정한 방식으로 정치적이다.**” ‘죽음에 내버려진 생명’은 ‘원초적인 정치적 요소’이며 ‘호모 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을 생산하는 추방이야말로 ‘정치의 근원현상’인 것이다.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은 각각 질서를 이루는 경계선의 양극단에 서있다. 주권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호모 사케르이다.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104-105 쪽)

- ▶ ‘경험의 파괴’ : 현대인의 일상은 경험으로 번역될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아감벤, 「유아기와 역사-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경험의 번역불가능성
- ‘경험의 빈곤’ : 종전이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더 빈곤해져. “...전략적 경험이 진지전에 의해, 경제적 경험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리고 육체적 경험이 배고픔에 의해, 윤리적 경험이 권력자들에 의해 대체되고 경험이 허위로 처형당”했고, ‘변하지 않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풍경’과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들의 몸뚱이’가 있던 시공간 사라져(벤야민, <경험의 빈곤>).
- 이야기의 소멸과 슬로건의 창궐
- 경험으로부터의 배움, 개별적 경험의 경시와 배제



- 경험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위상 변화: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인식 영역에서 배제, 감성 형식과 지성의 통합을 실현하는 표상을 통해 감각과 지성을 매개하는 상상력의 매개 기능 소실. 경험의 주체였던 환상은 심리적인 소외의 주체, 참된 경험을 뺀 나머지 것들, 예견과 마법적 현상들의 주체로 등극
- 언어 실험  
(조르조 아감벤, 『유아기와 역사-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함께 생각해보기를 위한 글>

##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에 대하여

### 1. 호모 사케르

신문을 보다 숨이 턱 막힐 때가 있다. 2009 년 용산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그러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지만, 국가 권력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 용산 참사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때, 테러범을 잡는답시고 엄한 사람을 폭행하고 증거도 없이 수용소에 가둘 때, 그리고도 당당한 '놈'들의 모습을 볼 때, 숨이 막히다 못해 돌아버릴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 권력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라고, 정신 차리라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고 증진시키는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들은 국가 권력이 '미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일까?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서 오히려 이것이 국가권력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법이 국가권력에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거꾸로 국가가 완전히 법 외부에 존재하기에, 실정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 국가권력은 늘 법과 질서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작동한다. 아감벤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법 외부도 내부도 아닌 식별되지 않는 영역을 창출함으로써 작동한다. 즉 분명 법질서 외부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법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 냄으로써 작동한다는 말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 이처럼 법 외부도 아니고 법 내부도 아닌 독특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보자. 그들은 20 년 넘게 20 만이 넘는 숫자를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법질서 외부에 존재한다. '미등록'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법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법질서 외부의 존재'라는 자격으로 한국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독특한 상황은 이주노동자가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조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폭행을 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무방하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달려가면, 도리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행위 이전에,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이런 존재를 “호모 사케르”라 부른다. 호모 사케르는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여도 되는 생명’이다.(175) 이는 호모 사케르가 처한 이중적 배제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들은 인간 법질서 외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희생제외에 사용되는 제물들처럼 완전히 인간 법질서를 떠나 신의 질서로 편입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법질서의 외부에 있는 방식으로 법질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희생물로 바칠 수도 없다. 즉 법질서 외부로 추방된 채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죽여도 무방한 존재. 아무런 권리 없이 단지 생 그 자체만 가진 별거벗은 생명. 배제된 채 포함되어 있는 존재. 이들이 호모 사케르이다.

아감벤이 보기에 국가권력, 즉 주권은 본질적으로 호모 사케르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가의 최고 권한인 주권은 전통적 주권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법을 멈출 수 있는 권한, 법을 멈추고 예외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호모 사케르는 바로 이런 예외 상태에 처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별거벗은 생이다. 이들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는 완전히 법질서 외부를 말하지 않는다. 예외는 “무언가를 배제시킴으로써만 그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관계”(59)이다. 호모 사케르는 외부의 존재라는 낙인을 쓴 채 체제 안에 존재하고 활용된다. 요컨대 주권은 법질서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가동하는, 생을 법질서 외부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법질서에 포함하는 권한이다.“별거벗은 생명의 창출은 곧 주권의 근원적인 활동이다.”(177)

아감벤의 이러한 통찰은 법질서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지만, 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끔찍한 행위들을 설명해준다. 유태인 학살이나 생체 실험에서처럼 법질서 외부에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 살 가치가 없다고 딱지가 붙여지는 방식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이들은 정확히 이런 주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라이’라 공인된 나치(Nazi)만이 아니라 같은 시기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미국에서도 버젓이 생체 실험이 행해진 사실은, 이것이 주권의 ‘정상적’ 작동 양상임을 증명한다. 아감벤은 법을 넘나드는 국가의 만행에 할 말을 잃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법과 자연이 식별되지 않는 영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본성입니다.”

## 2. 투박한, 너무나 투박한

아감벤이 수용소가 주권권력의 본성을 보여주는 근원적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수용소는 법 내부에 있지만, 그 안의 존재들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렇기에 수용소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322) 수용소는 별거벗은 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곳은 법적 상태와 자연상태가 뒤섞인 공간이다. 아감벤의 논의는 이처럼 법과 자연 혹은 제헌권력과 제정권력을



대립쌍으로 가정하는 기존 정치학의 구도를 가로지르며, 그런 의미에서 분명 독창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감벤에 열광하고 그가 국제적인 스타 이론가로 부상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열광에 동참하기에는 어떤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다.

가장 먼저 과연 엄밀한 의미의 호모 사케르가 현실에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앞서 말했듯 호모 사케르는 사회 안에 있지만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간이 이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물론 권력은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권력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그가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는 법 외부에 존재하지만, 죽여도 괜찮은 존재는 아니다. 용산 참사가 불러온 광범위한 저항은 오히려 국가권력이 누군가를 쉽게 '죽여도 괜찮은 존재'로 선포하지 못함을 증명한다. 엄밀한 의미의 호모 사케르는 과거의 유태인 수용소나 현재의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소수의 공간에만 존재한다. 물론 아감벤이라면 현재 호모 사케르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모두 "잠재적 호모 사케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232) 하지만 유신에 대한 저항과 정권의 몰락이 잘 보여주듯, 계엄 같은 상황으로 비로소 '현실화된' 주권권력과 마주한 사람들조차 쉽게 '호모 사케르'라 말하기 힘들다.

물론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정의에 집착하는 대신, 호모 사케르가 가진 위상학적 특이함에 주목함으로써 현실권력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위상학적으로 호모 사케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넓고 투박하다. 그것은 권력에 영향받는 존재들이 가지는 차이점을 망실시킨다. 호모 사케르의 위상학적 특이함을 강조한다면, 중증장애인은 역시 호모 사케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분명 사회 내에 존재하지만, 다른 권리는 물론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체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집안이나 시설에서 감금되어 살아간다. 이들 역시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만 법 바깥에 존재하는 호모 사케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은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법의 관점에서 위상학적 위치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권력에 의해 다루어지는 방식이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효과, 나아가 이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양상은 제각각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권력은 주기적인 '단속추방'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저임금 노동력'의 창출이다. 즉 '위험한 일을 마구 시키고 심지어 임금을 체불해도 뒤탈 없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이다. 이를 통해 권력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노리기보다, 사회의 '정상성'을 확립하는 효과를 꾀한다. 즉 중증장애인을 '병신'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감금함으로써, 사지육신을 지니고 노동하는 삶이 '정상적'이라는 사회의 특정한 합리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은 이런 차이를 망실시키고, 단지 이들이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만을 강조한다.

나아가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은 비참한 이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가진 저항의 힘을 포착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한다. 아감벤 논의에서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의 일차적 기능은



주권권력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권력에 대한 저항력을 전혀 갖지 못한 존재로 묘사된다. 호모 사케르는 권력 앞에 생명 자체만을 갖고 서있는 비참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없는 존재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권력의 잔혹함을 깨닫는 동시에 빠져린 무력감을 느낀다. 그렇기에 어떤 주체를 '호모 사케르'라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을 '고발' 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그들이 가진 힘을 포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을 호모 사케르라는 틀을 통해 보면, 그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벌거벗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는 시설 안에 감금된 장애인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폭발적 저항과 투쟁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거꾸로 이주노동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힘과 저항들은, 법적 위상을 근거로 누군가를 비참한 존재, '호모 사케르'라 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질문하도록 만든다. 법적 위상으로는 호모 사케르라 해도 좋을만한 이들이, 주권권력을 증명하는 대신 거꾸로 그것에 도전하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이 가진 이런 약점은, 아감벤이 가진 논의 구조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엄밀히 말해, 아감벤의 권력 설명은, 분석이라기보다는 묘사에 가깝다. 아감벤은 주권권력이 호모 사케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작동한다는 사실을 여러 각도로 설명한다. 때로는 흠스 같은 전통적 주권론자의 논의 속에 자연상태와 법의 상태가 혼합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성을 빌어와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힘"의 존재를 설명한다. 고대 로마 가부장이 가졌던 생사여탈권에서부터 최근의 생체실험에서까지 폭넓게 호모 사케르와 주권을 읽어낸다.

이런 복잡하고 현학적인 설명을 조금 폭력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주권은 원래 그렇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즉 유태인 학살처럼 예외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작동하는 독특한 권력 작동을 보고서는, "권력은 원래 그렇다. 예전부터 그랬다. 수많은 주권논의에 숨겨진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의 권력 작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분석이 아니라 묘사다. 분석이란 그런 특이한 형태의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서술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감벤은 그저 그것이 주권의 '본성'이라 말한다. 그리고 '원래 그런' 근거를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있을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아감벤에게 "권력은 왜 예외를 창출하면서 작동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권력은 원래 예외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 3. 주권에서 생명권력으로

오해하지 말길. 그렇다고 아감벤의 이론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다. 무엇보다 아감벤은 이제껏 정치나 권력의 사유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영역을 드러낸다. 법이 작동한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법 바깥에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여러 권력의 양상이 그것이다. 그가 수차례 강조하는 '비-식별역'이란 바로 이를 뜻한다. 하지만 아감벤처럼, 그것에서 권력의 본성을 읽어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설명해야 할 대상을



설명의 근거로 치환하는 일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아감벤이 보여준 바로 그곳에서 '묘사'가 아닌 '분석'을 시작하는 것, '비-식별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다.

나는 푸코의 생명권력이 여기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감벤은 푸코의 생명권력을 인용하면서, 푸코가 생명이 정치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음은 포착했지만, 구체적으로 주권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고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엄밀히 말해 이는 푸코의 문제의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푸코의 생명정치는 주권이 생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전통적인 권력 설명 방식을 넘어 생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푸코의 이런 시도는 여전히 '주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아감벤을 극복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된다.

푸코의 방법을 따라 아감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대권력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권력'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감벤이 말하는 생명권력은 사실상 '죽이는 권력'이다. 아감벤은 모든 권력 현상에서 예외 상태를 선포해 호모 사케르를 만들겠다는, 그래서 생을 별거벗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주권의 동일한 협박을 목격한다. 반면 푸코는 근대 생명 권력은 단순히 생명을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를 유용하게 길러내는 권력이라 지적한다. 19 세기 이후 권력은 단순히 죽음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노동자, 정상적인 성 행위자, 이성적 인간을 길러낸다. 물론 이는 권력이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거꾸로 그런 죽음조차 어떤 '효과'를 낳는지, 다른 인민을 길러내는 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권력의 적극적(positive)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생명권력은 아감벤의 투박함을 극복한다. 즉 어떤 권력 현상에서건 '예외 상태에 처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단일한 주권의 권능을 보는 대신, 그 현상이 일으키는 효과와 이를 통해 육성되는 생명의 양상을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감벤에게는 19 세기의 주체이건 20 세기의 주체이건 그들은 별거벗은 생의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모두 호모 사케르이다. 반면 푸코에게 19 세기의 주체는 특정한 정상성을 내면화함으로써 길러지는 규율된 주체이지만, 20 세기 이후의 주체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를 요구받는 기업가적 주체이다. 이론의 목적이 권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권력의 양상과 허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이 보다 유용한 태도인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권력은 권력을 관계로 정의함으로써 주권을 극복한다. 주권은 권력에 특정한 중심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 중심은 지고한 권한을 갖고 있다. 권력 현상은 그런 중심이 발휘하는 능력이다. 아감벤 역시 이런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주권을 입법권으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논의와 달리, 그것을 '예외상태 창출권'으로 정의할 뿐이다. 이런 주권이론에서 권력 행사는 모두 동일적이다. 모두 주권이라는 동일한 권력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감벤에게는 로마 시대 가부장의 권리도, 프랑스 혁명에서의 혁명정부도, 나치 정권도, 미국의 생체 실험도 모두 이런 '예외상태 창출'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중증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권력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들은 결코 모두 동일한 사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특정한 중심이 발휘하는 권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맺는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는 법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개입한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죄수에게 가해지는 권력에는 단지 법만이 아니라, < 죄수와 간수를 관통하는 시선의 배치>, < 독방이라는 건축적 양식>, < 법률위반자를 비행자로 파악하는 정신의학> 등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런 관계가 달라지면, 권력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작동한다. 특정한 권력 현상마다 거기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양상이 다양함은 그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제는 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법인 동시에 법이 아닌 비-식별역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지식, 기술, 건축 등)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작동시키는지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항은 바로 이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양상을 세세하게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요소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과 전략이 이를 관통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그 허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은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주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항은 각 권력 현상마다 어떤 특이한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감벤의 논의는 분명 독창적인 이론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담론이 포착하지 못한 현상을 드러낸다. 아감벤은 법으로 설명이 안되는, 그렇다고 완전히 법 바깥에 있다고도 말하기 힘든 권력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현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입법권을 권력의 궁극적 권한으로 보고, 법적 개념으로 권력을 환원했던 전통적 주권이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하지만 그는 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권력 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법과 법 외부가 뒤섞인 '비-식별역'을 가정함으로써, 그리고 '비-식별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권과 법의 본성이라 재정의함으로써, 다시 모든 권력 현상을 하나의 설명으로 환원한다. 이는 주권과 법에 대한 조금 특이한 정의가 될 수는 있지만, 주권이 가정하는 '권력현상의 동질성'이나 '죽음으로 환원되는 권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논의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가능성까지 차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감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제기한 특이한 권력 현상에서, 죽음의 권력이 아닌 살리는 권력을 읽어내는 것. 각각의 현상이 드러내는 여러 권력의 세밀한 관계를 읽어내는 것. 주권에서 생명권력으로 이행하는 것. 그것이 아마 아감벤을 넘어 다시금 권력과 저항을 사고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 만세(수유너머 N)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_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10



◦ 맺음말 : 사회적 죽음에서 벗어나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옥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있고, 함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받아들이고 그 지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험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지옥의 한가운데서 지옥 속에 살지 않는 사람과 지옥이 아닌 것을 찾아내려 하고 그것을 구별해 내어 지속시키고 그것들에 공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옮김, 민음사, 2007, 208-209 쪽)

▸ 실존에 대한 자각, 존재의 구축

-억압(오늘날에는 '배제'나 '빈곤', '고통'이나 '빈곤'으로 대체)의 모든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억압에 얼굴을 부여하기(171)

-온갖 역능을 가지고 삶을 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재전유하기(157)

-새로운 존재, 죽지 않을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

-존재가 혁신되는 순간을 살아가고 직접 영원성을 따르기-사회운동, 삶의 실천들(193)

(안토니오 네그리, 「귀환」,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6)

-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과 대안적 인간생명 보존의 가치

“정치적 언어가 아닌 치료적 언어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호명하는 것”

(프랑코 베라르디[디포],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울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 3. 서양 현대미술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예술의 죽음'

▸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부정적 열정, 자기소멸적 열정, 불행한 의식,

▸ 모더니즘 예술: '지금, 여기'의 절대적 원칙인 순수한 부정, 반예술을 고수

▸ “예술의 죽음”과 관련된 전사: '예술의 종언'(헤겔)/ 부정의 미학(아도르노)

1)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를 파괴하기 위하여 형식적 분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작품을 제시하였던 다다이스트들, 예술과 욕망과 정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현실의 일부분이면서 격리된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 초현실주의자들, 예술적 생산수단을 변형시킴으로써 탈인간화의 전략을 수행하였던 구성주의자들, 그리고 이후 예술가들에 의한 여러 모더니즘적 시도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예술 자체의 의미변화와 예술의



사회적 공간-예술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과정과 예술의 실천 장소로서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실천적 비판을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예술의 자율성을 완성하였으되 그 즉시 붕괴되어버린 미니멀리즘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모더니즘 예술은 존재론적 부재(죽음)를 통해서 의미론적 확장(예술에 대한 사유)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더니즘 예술은 자신의 가차없는 부정적인 태도를 엄격하게 견지하면서, 금욕적이고 유토피아적이며 합리주의적인 미학을 토대로 인위적인 단절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전통과 단절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를 강조해 온 모더니즘 예술은 과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인위적으로 단일화하고, 삶의 복합성과 과거와의 연속성을 제거시켜 극도로 단순화되었다. 대부분의 모더니즘 예술에서 예술에 대한 사유가 거의 직접적인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초역사적인 함축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모더니즘 이후 예술은 과거의 파괴가 도달한 침묵, 백지, 순수한 육면체, 단색 화면 등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과거는 형식들의 참고로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와 모순적인 질문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적 공간'(로버트 벤추리 Robert Venturi)으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해석학적 술어들로 다듬어진 과거가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미래에 의거하여 '지금, 여기'의 절대적 원칙인 순수한 부정, 반예술을 고수해 온 모더니즘 예술의 메타서사들은 점차 신뢰성을 상실했다. 대신 메타서사의 자리를 이질적이고 국지적인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에서는 '예술가 주체'라는 근원으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그 근원을 제거하여 새로이 '독자'가 탄생하였고,(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예술작품'은 이질적인 언어들에 게임을 벌이면서 발견하는 '창조와 자유의 가능성'으로 타진되었으며,(장-프랑수아 리오타르 Jean-François Lyotard) 예술 형식의 '순수성' 대신에 '비순수성'이 미학적 본질로 여겨진다.(기 스카페타 Guy Scarpetta)

2)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이 개별적으로는 의도나 함축적 의미, 미적 성과가 매우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업에서는 일정한 관습 또는 미적 태도가 공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예술의 중심문제가 모더니즘에서는 어떤 실재적인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식적이었던 데 반하여(전통을 거부하고 예술이 실증주의적 과학의 목적들이나 사회의 수단-목적의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고 예술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에서는 존재론적(행위)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식으로서의 예술에서는 미적인 것이 예술작품의 투사를 통해 세계인식을 성취하므로, 예술은 세계 이해의 일상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모더니즘에서 예술작품이야말로 예술가가 관조자의 입장에서 사물의 미적



가치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관심으로부터 해방된 만족감(만)이 예술에 대한 수용적 이해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존재로서의 예술에서는 미적인 것이 존재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투사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고, 예술의 목적이 개인들의 역사적 교양, 또는 인간의 자기정립으로서 규정된다. 예술작품은 세계 투사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자극제 또는 보호막이 되어 현존하는 구체적인 현실성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예술의 존재론에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역사, 예술작품 생산에 대한 역사 그리고 예술작품 수용에 대한 역사 등이 가능한 한 여러 다차원적 지식을(생활세계의 지식을 포함하여) 형성하면서 통합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게 된다.

▸ 모더니즘의 예술 인식이 대부분 세계 이해의 일상성과 분리되어 이질적인 것의 극단에 머무는 경우(당시 대중과 예술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를 초래하였다면,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들에서는 모더니즘적 인식을 반성하고 예술이 확장된 세계 이해를 이끄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어떤 세계들이 존재하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서로 다른가, 예술의 존재방식은 무엇인가, 예술이 투사하는 세계들의 존재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모더니즘 이후 이러한 의도가 담겨진 예술작품들은 스스로 대중들의 세계 이해를 위한 가능성의 통로가 되고 있어서 점차 예술작품이 문화적 구성요소로 정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삶의 세계, 역사적 문화에서 예술작품이 특정한(보편적이지 않은) 의미체로 작용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